

미래산업 육성 실물경제 성장으로 민생 회복

전주시 경제산업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주시 경제산업국은 21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미래산업 육성과 실물경제 성장으로 민생 회복을 비전으로 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민생 회복을 견인할 5대 전략은 △3대 주력산업(수소·탄소·드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거점도시 도약 △부자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강한 경제 견인 △소상공인 안정 및 사회적 경제 성장 지원으로 실물경제 회복 등이다.

첫 번째 전략인 3대 미래산업(수소, 탄소, 드론) 혁신을 통한 차세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도약과 탄소산업 거점도시 도약, 글로벌 드론 선도도시 도약을 집중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수소경제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인프라를 활용하고, 탄소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털솔루션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확장과 질적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글로벌 드론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난해 확보한 국비 15억 원을 바탕으로 2025 전주드론축구를 월드컵을 개최해 글로벌 확산과 신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의 신규 장비를 활용한 KOLAS(한국인 정기구) 인증 획득을 통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시는 미래 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거점도시 도약을 위해 디지털 분야 생태계 활성화, 지역 특화 차별화된 과학문화 복합공간 조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기업 친화 생태계 구축을 주력해서 진행한다.

디지털 분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가상융합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유지 지원사업 고도화, 노후거점 산업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추진, 우수 유망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추진과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먼저, 비상사국과 내수 경제 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경영안정 지원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글로벌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 7개 분야 20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84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마련해 약 80개 기업에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약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70여 개 중소기업의 바이어 발굴과 수출 바우처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올해는 탄소소재 기업 유치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보조금 추가 지원) △유망 기업 1:1 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창업기업 성장 발판 마련, 상생 노사관계 구축으로 강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13억원을 들여 18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취약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DB구축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공공근로 사업에 고용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을 들여 18세이상 65세 미만 취업취약계층 시책일자리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은 6월경 1회 추경예산을 10억 원을 반영 후 하반기 사업에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유망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 주형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사업 △전주형 창업 패키지 사업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선순환 인프라를 구축한다.

한편 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주 희망드림 특별보증 확대 지원 등을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주사랑상품권 2,000억 원 발행과 △골목형상점가 지정·발굴 등을 통해 지역 소비 촉진 등을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 맛배달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여 가맹점과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할인쿠폰과 이벤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및 상가가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는 특화시장으로 성장하여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고물가와 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접근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2025년 새해출발 특판 예금 출시

전북은행, 가입기간 6개월에 최고 연 3.20% 금리 제공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새해맞이 이벤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2025년 새해출발 특판 예금'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판매하는 이번 '25년 새해출발 특판 예금'은 가입기간 6개월에 최고 연 3.20%(기본금리 연 2.90%) 금리를 제공하며, 총 판매 한도는 3,000억원으로 판매한도 초과 시 해당 초과일까지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최고 연 0.30%가 제공되는 이벤트 우대금리의 경우 개인고객이 해당 예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 법인고객은 가입고객 전원에게 연 0.1%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예금 신규 익



월부터 3개월간 수시입출금계좌의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연 0.2%가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고객들과 희망찬 시작을 함께 하고자 이번 특판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북 14개 시군지부장들과 함께 2025년 첫 전략회의를 가졌다.

2025년 전북농협 지부장 전략회의

농업소득 3000만원 시대 만들기 위한 결의 다져

지난 20일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전북 14개 시군지부장들과 함께 2025년 첫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부장들과 함께 전북본부의 중앙회, 경제지주 단장들이 모두 참석해 농업인, 농업 그리고 농촌의 발전을 위한 여러 방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의 원년을 만들기 위해 농축산물의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문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토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2025년 전북농협은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이 되자는 슬로건 아래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농축협의 성장과 발전 지원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역 토양 오염 조사결과, ‘양호’

전북지역 87개 지점, 법적 기준치의 약 0.8~48.0% 수준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전북지역에 운영 중인 토양측정망 87개 지점에 대한 2024년도 조사결과,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없다고 밝혔다.

토양측정망은 토양오염 실태 및 오

염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북지역에 175개 지점이 운영 중이며, 홀수년에 88개소, 짝수년에 87개소를 각각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전북지역 6개 시·군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8종, 일반항목 13종, 토양산도(pH) 등 총 22개 항목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불소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 우려기준 대비 평균 48.0% 카드름, 구리 등 중금속 항목 7종은 0.8~21.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 6가크롬(G6+) 유기인 화합물, 시안,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3개 항목은 전 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김옥기 기자

무진장 농어촌공, 안전보건협의체와 4.4 안전점검의 날 회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진 38명과 함께

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은 매월 넷째 주 화요일로 지정하고, 지사장, 관리감독자, 공사감독, 각 사업 현장 소

장 등 38명이 참석하여 재해발생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합동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전 군산지사, 노사합동 사랑나눔 봉사활동 시행

한국전력 군산지력지사(지사장 미순철)는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이해 노사합동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송변전설비 인근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외된 이웃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역 내 복지센터와 합동으로 명절 떡국 꾸러미를 구매하여 전달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